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등록 교우 : 손문영 장로(갈렘목장), 유명자 권사(헐시바 목장), 김관호 집사(주사랑 목장), 명노은 집사(헐시바 목장)
2. 오늘은 성찬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경건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점심식사는 '몽골 선교를 위한 음식바자회'로 섬깁니다. 1층에서는 식사를, 2층 예향카페에서는 음료를 드실 수 있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선교비로 사용됩니다.
4. 다음 주일낮예배 기도담당은 신재준 집사님입니다. 오후찬양예배는 김금옥 권사님입니다.
5. 담임 목사님은 7월 2일(월)~5일(목)까지 제주 남국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7월 1일	7월 8일	7월 1일	7월 8일
예배기도(오전)	박성대 집사	신재준 집사	이현호 집사	박성근 집사	
예배기도(오후)	임명희 권사	김금옥 권사	정진숙 권사	황희용 권사	
주일식사담당	몽골선교 음식바자회	헐시바 목장 (김금옥 권사)	양떼 목장 (황희용 권사)	눔바 목장 (유숙정 권사)	
토요일청소	둘로스 목장 (7/7)	주사랑 목장 (7/14)	갈렘.아론목장 (7/21)	에덴 목장 (7/28)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7월 16~21일에 있을 몽골단기선교를 위해서
2. 남여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병환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쉼터.(국내) 사역자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경독	교독문 56번(시편 128편) 다같이
*경배찬송	20장(통 41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428장(통 488장) 다같이
대표기도	박성대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왕상 19:9-18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허영진 목사

성례전

권면	집례자
제정의 말씀	집례자
성찬참여	다같이
성찬후기도	집례자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장 14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영진 목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오승현집사 다같이
묵상기도	은혜를 구하며 다같이
찬송	430장(통 456장) 다같이
기도	임명희 권사
특별찬양	'너무 늦은 건가요' 이준화 집사
성경봉독	출 7:3-7 인도자
말씀선포	'경건을 훈련하자' 허영진 목사
기도	허영진 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353장(통 391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일 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이번 주 수요일예배는 쉬겠습니다.

금요일 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기도의 과학'(26)

새벽기도회 새벽 5:30 시편 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시 80:1-19 '구원의 손길'(1)-(5)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삶의 조금증'

한낮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다. 해가 지면 그나마 선선해지면서 기온이 푹 떨어진다. 산책하기에도 운동하기에도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주로 앉아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운동이 필요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걷기부터 시작하자는 생각에 일부러 먼 곳을 택해 걸었다. 갈 때에야 좋지, 막상 그 먼 거리를 돌아오려니 아찔하다. 사실 이렇게 걷는 산책도 부침(浮沈)이 심하다. 이런 저런 사정이 생기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일주일에 두세 번 하는 정도다.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려 일부러 한낮의 더위와 언덕을 택해 목적지까지 걷곤 했다. 힘들지만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그 날도 한낮의 더위와 씨름하며 한참을 걸었다. 그러다가 전날 밤 비바람에 떨어진 낙엽들을 보면서 시간의 빠름을 느꼈다. 정신이 퍼뜩 든다. 연초록의 잎사귀를 띄운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낙조의 계절인가 싶어서다. 분명 주변은 여전히 신록으로 우거져 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일까. 정해 놓은 목적지를 맘 흘리며 향하고는 있지만, 갑자기 숨이 턱에 차고 가뻔다. 늘 상 가졌던 흥겨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마치 시한부 인생처럼 시간의 한계 안에 갇힌 것만 같다. 그렇게 숨을 몰아쉬며 언덕길을 반복해서 걷다 목적지에 닿았다. 돌아갈 길이 아득하다. 한참이나 쉬다 다시금 일어섰다. 굳이 땅을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돌아오는 길엔 하늘만 바라보고 걸었다. 한결 걷기에 수월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내가 왜 이려고 사나 싶을 때가 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세워 시도해 보지만, 그 한계의 끝자락에서 새삼 낭패를 경험하곤 한다. 그러다보면 삶이 조금해진다. 삶의 조금함은 더 깊은 나락으로 이끈다. 사람이 땅의 일에만 매여 있으면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신앙인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다. 물론 하늘만 바라본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의지적 노력,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가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산다면, 언젠가는 낭패를 넘은 목적지에 성큼 다가와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힘겹더라도 자주 걷자. 그것도 하늘을 보면서.

Written by 허영진